

삼성전자, 모니터 시장 5년간 1위

IDC, 2011년 세계점유율 15.1% 차지 ... LED모니터 1200만대 생산

삼성전자가 세계 모니터 시장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.

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, 삼성전자 모니터는 2011년 세계시장 점유율 15.1%(수량 기준)를 차지하며 5년 연속 1위를 지켰다.

2011년 4/4분기에는 점유율 15.5%를 달성하며 2006년 3/4분기 이후 22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. 국내시장에서도 12년 연속 정상상을 지키며 국내외 모니터 시장을 이끌고 있다.



삼성 모니터는 중남미와 독립국가연합(CIS)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선진시장 뿐만 아니라 성장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.

삼성전자는 2011년 세계 최초로 LED(Light Emitting Diode) 모니터 1200만대를 판매함으로써 23.3%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다. 2010년 판매량의 4배 이상을 달성했다.

24인치 이상의 대형 모니터 시장에서도 27.5% (판매량 기준)를 차지함으로써 2위와의 격차를 18%로 벌리며 선두를 지켰다.

삼성전자 김정환 전무는 “삼성전자는 모니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왔다”면서 “편리하게 모바일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, 전문가를 위한 초고화질 모니터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3/05>